

# 현대불교

지리산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품질우수차로 한국인들에게 사랑 받음  
• 품질 우수차로 세계 각국에 수출

0595)83-9665 / 83-3478

고대불교를 되찾는 방법

**빅만평생통장**

• 빅만평생통장은 빅만평생통장  
• 빅만평생통장은 빅만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형/발행인: 김원익/편집: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구로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6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구**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 그리고 진리를 듣는 것은 최상의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 법회 안내

- 법사** (02)889-7272
- 장기법회 매월 셋째주 일 오후 2시 신도리간법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시 30분
  - 장년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후 4시
  - 학원법회 매월 일 오전 10시
  - 명사법회 매월 12일(음) 낮 12시
  - 심장사** (0397)73-2487
  - 일본신도회 매월 일 오전 10시
  - 고향법회 매월 일 오후 8시
  - 어린이법회 매월 일 오전 10시
  - 안락문명회 매월 18일(음) 7시 30분
  - 강릉 심가사 (0391)43-9234
  - 귀암법회 매월 14일 오전 10시
  - 보요법회 매월 토요일
  - 운전자 안전운전 불교 매월 24일(음) 오전 10시
  - 동해 심가사(0394)31-4082
  - 일본신도회 매월 22일 오전 10시
  - 종교문화법회 매월 일 오전 10시
  - 어린이법회 매월 일 오전 10시
  - 일암 문수사**(0396)671-8889
  - 일본신도회 매월 18일 오전 10시
  - 장년법회 매월 14주 일 오후 7시
  - 종교문화법회 매월 토요일 오후 2시
  - 원주 법문사**(0371)46-1300
  - 일본신도회 매월 일 오전 10시 30분
  - 장년법회 매월 1, 2 주 화 오후 7시 30분
  - 귀암법회 매월 수 오후 8시
  - 어린이, 학생법회 매월 토요일 오후 2시
  - 춘천 보문사**(0361)57-7070
  - 장년법회 매월 목 오후 7시 30분
  - 일본신도회 매월 12일(음)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 교권유린에 佛心 '분노'

### 시국법회 2천여명 동참...공식사과·재발방지 요구

조계사 공권력 남用に 분노한 불자들이 정부 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교계 11개 단체가 연대한 6·6교권 유린 범법교 대책위원회(위원장 명진·효림스님)는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시국법회'를 열고 청정도량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일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실정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 내려오는 종교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역사적 전통이 일시에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허탈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법집행이라는 구실로 공권력에 의존하여 나라를



○사부대중 2천여명은 조계사에서의 시국법회 참석후 공권력 남用に 대한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파고다공원까지 촛불 집회정진을 벌였다. <사진=박재민 기자>



○은석국교 3학년 1반 어린이들이 '불자 가정' 스티커를 손에 들고 '나쁜 불자'를 외치며 자랑하고 있다.

### '불자 가정' 관심확산

지난 12일 김상희씨가 진행하는 교동방송의 '즐거움 저녁' (PD 양성식) 1분공고에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불이기가 운운이 소개되면서 전국 불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자가정' 스티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실만 원입니다. 또한 낱말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본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불이기 동참자**

천매이상: △매인사(주지 도주) △예천 포교원 △인현 전통사 △도봉산 석굴암 △상상산 삼막사(주지 승운) △보리대원사 천매이하: △한불합창단(단장 정옥란) △광도사(주지 암도) △나산포교단(단장 정문) △일광사 △선영회 △경기 대각사 △강릉사 포교당(현수스님) △법문사 △도선사 △법문사(주지 해일)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권영부) △백련사(주지 운암) △용산구 묘법사 △김태욱 △강덕호 △진화장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시: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중앙협의회 · 대한불교조계종원

통치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일주스님은 △정부최고 책임자 조계사 불교도들에 대한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임종문책 △구속 노조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 것 등을 정부측에 공식 요구했다.

법회를 마친 후 참가 사부대중은 성지유린에 항의해 촛불을 들고 조계사를 출발해 파고다공원까지 집회정진을 벌였다.

이에 앞서 범법교대책위원회는 12일 조계사에서 승가 법사 학계 재야 실업청년학생 문화 예술, 언론방송, 노동계 등이 참여한 '불교도 108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공권력투입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스님 20여명은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와 연대해 '성소회복을 바라는 종교인 1천인 선언'을 발표하고 정부 구탄대회를 가졌다. 18일에는 4개 종교단체 종교인 4백여명은 조계사를 출발, 명동성당까지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정진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

또 전승관과 조계종 직할사 일 주지 연수, 그리고 불국사 동화사종 경복 5개 본·말사와 해인사 암계사 본·말사 주지들도 9일과 11일 각각 종교 성역에 공권력이 투입된 데 강력히 항의하는 결의문 채택과 성

### 선학원 문제 원로들 나섰다

#### '특위 지도 고문단' 해암·석주스님등 6인 추대

선학원 문제 해결에 원로들이 나섰다.

조계종은 지난 1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원로·중진·특위위원·선학원이사들이 참석하는 연석 간담회를 마련 원로들로 구성된 '선학원 특위 지도 고문단'의 발족을 결의했다.

이날 추대된 지도고문단은 해암(조계종 원로의장) 석주(철보사 조실) 승수(법수선원 조실) 백암(선원사 조실) 진재(동화사 금묘선원 조실) 월주(조계종 총무원장)스님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학원에 대해 △정관 제3조 목적 '대한

불교 조계종 중지를 봉대하고' 삼입 △제6조 임원선출 '대한불교조계종 재적 승려 중에서 선출, 다만 선학원 본원장 중에서 3분의 2, 조계종 원로스님 중에서 3분의 1을 선출, 이사장은 조계종 원로의장으로 추대, △선학원 이사를 선출해 조계종

총무원의 취임 승인을 받는다. 또한 관계개선 방안으로 △특위보고회 인정 △총회의원 3인 배정 △도제교육에 대한 분담금 의무 이행 △본원장및 말사주지의 임명은 선학원 이사장이 행할 △선학원에 등록된 사찰 주지는 사자상승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결의했다.

한편 (재)선학원은 조계종의 수정 요구안을 정식 전달받는데로 이사회를 소집 조계종의 결의사항에 대해 대응키로 했다.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문체부 7일 입법 예고**

문체부는 지난 7일 지정문화재 관할로 '예치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월 20일 행정재신위원회에 결정을 수용한 이 개정안은 28일까지 공고후 법제처 심사과 대통령 재가후에 국회에 상정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 변경행위를 문체부장관의 허가사항에서 재외 문화재 관할로 징수·관리단체 지정제도를 폐지 △사유 국가지정문화재 관할료의 금액은 소유자가 결정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관할료 예치금제도 폐지 △관할권 겸임제도와 관할권 서식제도 폐지 △문화재의 포식안내관 경고관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안내관의 문안 감수제도 폐지 등.

### 목을 해치는 도끼

목어

(대교왕경)(大教王經)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한약 사람이 명리를 구하기 위해 망령된 말을 하는 경우 우 무거운 과보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도 생을 거둬들면서 수명의 장애를 받는다."

6·27선거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일꾼이 되겠다는 15,427명 후보들의 '말의 상한'이 전국 곳곳에서 무뎠게 차려지고 있다. 후보를 지지하는 후원을자들, 상

찬에 초대받은 유권자들 모두 조급씩 들떠 나라안이 마치 잔치집 분위기다. 이런 마당에 부처님 말씀을 새겨보는 이유는 선의의 경쟁자들이 행여 당선에 눈이 멀어 지나친

난무한다. 정어(正語)가 아닌 많은 들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부처님께서는 일러 주셨다.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하는 것이 말이다.

6·27고지를 향해 뛰는 후보들 냉철해야 하지만, 바른 일꾼을 뽑으려면 유권자의 어깨도 결코 가볍지 않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공약이 화려해도 실천 가능성의 유무를 가리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또 후보끼리 서로 비방해

공약을 내걸거나 다른 후보를 비방할까 염려해서다.

선거종료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공명선거를 위한 계몽·감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는 '말'이

도 거기 휘둘러서는 안된다. 진실을 보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한가지 더 참언한다면 유권자들이 할연 하면 자연에 종교색까지 더하는 '권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후보는 바른 말을 하고, 유권자는 바르게 듣고 신중히 주권을 행사해야만 바른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다.

"재임은 입에서 나온다. 입이야말로 몸을 해치는 도끼요, 몸을 죽이는 칼날이니 입 지키기를 사나운 불 지키는 것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보은경(報恩經)

**독자페이지 14면**

**좋은 방송 만들기 한뜻동참 20면 발행**

**태고종 개혁신안 발표 '새출발' 18면**

**하와이 국제 불교 학술대회 15면**

"패션 자동차 시트카바"

**ALT-X**

AUTO DRESSING SHOP

① 이베아 ⑥ 아우토반 ② 아세모에 ⑦ 미스터티 ③ 문 ⑧ 아로스 ④ 다텝 ⑨ 무미니스 ⑤ 프리클램 샹 시그널

⑩ 인원수원 (032)812-9553

⑪ 서울강남점 (02)556-4468

⑫ 서울북부점 (02)9923640

⑬ 서울구로점 (02)808-3441

⑭ 화정부점 (0351)872-2192

⑮ 안양점 (0343)53-9263.4

⑯ 수원점 (0331)38-8280.1

⑰ 대구서부점 (053)654-6204

⑱ 대전서부점 (042)633-7071

⑲ 전주점 (0652)74-0072

⑳ 광주북부점 (062)524-4255

㉑ 제주점 (064)58-2660.1

■ 세인점 모집

• 모집조건

평수 20평이상 소유하고 계신분  
기타 - 우유소 대령카운터대리  
계좌입 등 문의 받습니다

• 세인사업무

TEL (032)812-9304-6  
담당자 차장 이명수

■ ALT-X세인점

■ 시합모집

• 모집분야

1 카운터대리  
2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3 인텔 디자이너  
(직장 2년제 졸업이상자)

• 홍보부

TEL (032)816-7053  
담당자 부장 장영웅

**Aquam**

인원수원부 22동 2207호 032-7678호 888호  
TEL (032)816-8551 FAX (032)816-8888